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와 자기자비의 역할을 중심으로[†]

임 효 열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하 승 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총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첫째,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과의 부적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에서만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성격적 성숙과 하위척도 연대감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율성보다 연대감에 더 부적 영향력이 있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연대감보다 자율성에 더 부적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애적인 성향에서 성격적 성숙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노반추의 통제와 자기자비의 함양 및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과의 관계'를,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의 필요에 대한 함의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분노반추, 자기자비, 성격적 성숙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7)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승수,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2-2290-0363, E-mail: 1120011@hycu.ac.kr

병리적인 자기에성 성격 안에는 서로 이질적인 속성 ‘웅대한 자기’와 ‘취약한 자기’가 함께 존재하는데, 자기에가 표현이 되는 모습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나누어진다(Akhtar & Thomson, 1982).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차이점은 대인관계와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의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Cooper, 2000), 외현적 자기에는 대인관계에서 무심하고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아도취적이고, 내현적 자기에는 거절당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애를 쓰고 타인의 반응에 매우 과민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외현적 자기에는 자랑하고 과시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며, 내현적 자기에는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만한 상황을 미리 회피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상반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self)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의 집중과(Bursten, 1982), 오직 ‘자기’ 만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기에적인 공통점을 갖는다.

Cloninger, Svrakic과 Wetzel(1994)는 성격(personality)을 기질(temperament)과 성격특질(character)로 구분하여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기질은 변하기 어렵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성격특질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Cloninger(2004)는 기질 및 성격검사(TCI)의 세 가지 기질(temperament)의 조합을 통해 성격장애의 개별적인 특성을 발견하였고 성격특질(character) 차원을 통해 성격장애를 변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황순택, 조혜선, 박미정, 이주영, 2015; Jylhä, Ketokivi, Mantere, Melartin, Suominen,

Vuorilehto, & Isometsä, 2013).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성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Cloninger(2004)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성격적 성숙이 취약한 자기에 성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에와 같은 기질적인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변인을 찾아 효율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박영주, 정남운, 2013), 자기에의 정서적 특성으로는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들 수 있다. 자기에적 분노는 강한 복수심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를 되갚아 줄까 반추하는 성향이 있고(홍이화, 2011),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백승혜, 현명호, 2008), 자기에의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 정서에 취약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동일한 자기에 성향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심리장애나 성격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질의 자동적 반응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성격적 성숙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유성진, 2010).

성격적 성숙(Character Maturation)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자동적인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하며(민병배 외, 2007), 동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격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 다른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격의 성숙도는 Cloninger의 TCI(기질 및 성격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의 성

격차원 중에서 자율성과 연대감의 조합으로 측정
을 하는데 ‘자율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Intra-personal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대감’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다(Cloninger 외,
1994).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직
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성격적 성숙을 구성하
는 하위요소들과 성격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을 살펴봄으로써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
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
율성과 연대감의 성격차원에서 전형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Svrakic, Whitehead, Przybeck,
& Cloninger, 1993), 자율성이 낮을수록 성격장애
와 관련이 있으며, 연대감이 높을수록 성격적 강
점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진,
2010).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율성, 연대감과
부적상관을 이룬다면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도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한편 외현적 자
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서로 상반된 특징으로 인
해 성격적 성숙의 구성요소인 자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비
취하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
문에(권석만, 한수정, 2000), 연대감과 부적상관이
있지만 의식수준에서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Akhtar & Thompson, 1982; Robbins & Dupont,
1992), 자율성은 연대감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과민하
고 소심하며 쉽게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하여(Akhtar & Thompson, 1982; Robbins &

Dupont, 1992), 자율성과 부적상관이 있지만 대인
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눈치를 보기 때
문에(권석만, 한수정, 2000), 연대감은 자율성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
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
람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차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미성숙한 성격에 이르
는 경로에서 분노반추를 조절하고 자율성과 연대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치료요인으로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가정하고 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Kohut
(1971)은 자기애가 양육 초기에 부모의 공감적 반
영의 실패로 인하여 자기애적 욕구가 결핍되고
적절한 이상화 대상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설명
하였는데 자기자비는 안정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위로 시스템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Gilbert,
2014), 자기애와 자기자비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
였고(박세란, 이훈진, 2013), 자기애의 공격성과 부
작용을 조절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김성주, 2014; 김한주, 2010). 아울러 자기
자비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며 목표를 향해 자기조절을 하는 TCI의 자율성
성격차원의 발달과 연결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높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사
회의 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TCI
의 연대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자비의
증진은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차원의 전반적인 성
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자기자비
는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성이 크고(고은정, 2014;
김송이, 2012; 박세란, 이훈진, 2015; 유연화, 이신

혜, 조용래, 2010; Leary, Tate, Adams, Batts Allen, & Hancock, 2007),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박세란, 2016),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 본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긍정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치료적 개입방법으로써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자비는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Leary et al., 2007), 자기자비의 증가로 반추가 줄고(안양규, 2014), 반추 경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녕감에 조절효과가 있으므로(이주연, 2011),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분노반추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자기에와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자비가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자기자비의 세 가지 주요요소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은 자기에 성향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웅대한 자기상과 대비가 될 뿐 아니라 자기자비는 병리적 자기에와 배치되고(Neff, 2003), 건강한 자기에의 특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는 병리적 자기에의 특성인 공격성을 완화하고(김한주, 2010), 일차적 분노사고가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효과를 보였고 분노조절에 영향력이 있으므로(이상현, 성승연, 2011), 자기자비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자기자비는 제3의 인지행동치료라고 부르는 마음챙김(mindfulness)이나 수용(acceptance)을 강조

하는 심리치료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가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와 통제였다면 현대의 인지행동치료의 흐름과 치료기제는 상위인지(metacognition)적 관점에서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추세이다(조현주, 2014).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가혹하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로 대하는 건강한 자기 수용적 태도으로써 고통이나 실패, 불완전함을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은정, 2014; 박세란, 이훈진, 2013; Neff, 2003; Neff, 2011).

매개효과는 변수들 간의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조절효과는 변수간의 관련성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환자들이 성격적 성숙과 부적상관을 이룬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Svrakic et al., 1993), 분노반추의 역할과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자주 분노감을 느끼고(권석만, 한수정, 2000),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적대감이 내면에 있고(Patalano, 1997), 복수심과 분노수준이 높게 나타난다(서수균, 2007).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외현적 자기에와 분노를 억압하거나 수동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내현적 자기에가 분노의 표현 형태는 다르지만(백승혜, 현명호, 2008), 자기의 결함과 상처로 인한 방어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분노반추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

압 모두와 정적 관계이므로(신정미, 조성호, 2014),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차이점과 성숙한 자기애 성격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가설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는 분노반추를 매개로 성격적 성숙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자기자비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반추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율성보다 연대감에 더 부적 영향을 미치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연대감보다 자율성에 더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의 구성요소인 자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충주, 광주시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응답자는 20세 이상 성인 총 503명으로 그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4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성별의 경우 남자가 231명(49.1%), 여자는 239명(50.9%), 연령은 20~29세가 213명(45.3%), 30~39세가 107명(22.8%), 40~49세가 119명(25.3%), 50~59세가 27명(5.7%), 60세 이상이 4명(0.9%)

로 나타났다. 결혼은 미혼이 236명(50.2%), 기혼이 226명(48.1%), 기타 8명(1.7%), 종교는 종교없음 224명(47.7%), 불교 58명(12.3%), 기독교 106명(22.5%), 천주교 68명(14.5%), 기타 14명(3%)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현적 자기애 척도. 외현적 자기애 척도(Overt Narcissism Scale)는 황순택(1995)이 DSM-IV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완하여 개발한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을 사용하였다. 자기중심성(9문항), 웅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7문항), 과장된 자기지각(2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애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전체신뢰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 & Thomson(1982)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 2개(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내현적 자기애 고유 요인 3개(목

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고유 요인 3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분노반추 척도. 분노반추 척도는 Sukhodolsky, Golub, & Cromwell(2001)이 분노상황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한 한국판분노반추척도(K-A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억반추(8문항), 원인반추(3문항), 보복반추(5문항)의 하위척도로 나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근배와 조현춘(2008)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척도. 자기자비 척도는 Neff(2003)가 개발하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비는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지양하며 자신에 대한 온정적,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며 하위요인으로 자기친절(5문항), 자기판단(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자기고립(4문항), 마음챙김(4문항), 과잉 동일시(4문항), 6개 요인이며 총 2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성격적 성숙 척도. 성격적 성숙 척도는 Cloninger 등(1994)의 기질 및 성격모형에 기초하여 개발한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S)의 성격척도 중에서 자율성(20문항)과 연대감(22문항)의 합으로 측정하며 0~4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의 20문항은 책임감/책임전가 5문항, 목적의식 5문항, 유능감/무능감 3문항, 자기수용/자기불만 2문항, 자기일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대감의 22문항은 타인수용 5문항, 공감/둔감 4문항, 이타성/이기성 4문항, 관대함/복수심 4문항, 공평/편파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병배 등(200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신뢰도 계수는 자율성 .85, 연대감 .81이었으며, 대학생집단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자율성 .76, 연대감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율성 .89, 연대감 .82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예측변인 별로 개인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점수를 사용하였고 VIF값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
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는데, 모든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변인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결과, 절대값이 2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에
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를 외현적 자기애로, 매개변수를 분노
반추로, 종속변수를 성격적 성숙으로 설정한 경우
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01$. 단계 2
에서도 외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β
 $=-.24, p<.001$, 단계 3에서는 외현적 자기애가 성
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9, ns$, 분노반
추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3,$
 $p<.001$,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살
펴보기 위하여 도출한 독립변수의 2단계와 3단계
의 표준화계수 β 는 각각 $-.24, -.09$ 로 2단계의 β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현적 자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N=470)

	1	2	3	4	5	5-1	5-2
1. 외현적 자기애	1						
2. 내현적 자기애	.28**	1					
3. 분노반추	.46**	.46**	1				
4. 자기자비	-.22**	-.64**	-.40**	1			
5. 성격적 성숙	-.24**	-.73**	-.36**	.67**	1		
5-1. 자율성	-.21**	-.80**	-.33**	.68**	.88**	1	
5-2. 연대감	-.19**	-.37**	-.28**	.41**	.79**	.40**	1
평 균	63.94	70.41	32.54	84.42	101.18	46.53	54.65
표준편차	13.35	17.12	9.79	12.58	16.43	10.64	8.97
왜 도	.20	.17	.66	-.28	.13	-.21	.13
첨 도	.56	.36	.15	.65	.11	.15	-.21

** $p<.01$.

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분노반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5.72$, $p<.00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성격적 성숙과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표 2. 외현적 자기에와 성격적 성숙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외현적 자기에 → 분노반추	.46	.46***	.212	125.70***
단계 2 (독립→종속)	외현적 자기에 → 성격적 성숙	-.33	-.24***	.057	28.22***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외현적 자기에 → 성격적 성숙	-.12	-.09	.139	37.70***
	분노반추 → 성격적 성숙	-.45	-.33***		

*** $p<.001$.

표 3. 외현적 자기에와 자율성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외현적 자기에 → 분노반추	.46	.46***	.212	125.70***
단계 2 (독립→종속)	외현적 자기에 → 자율성	-.19	-.21***	.043	20.80***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외현적 자기에 → 자율성	-.07	-.07	.112	29.45***
	분노반추 → 자율성	-.28	-.30***		

*** $p<.001$.

표 4. 외현적 자기에와 연대감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외현적자기에 → 분노반추	.46	.46***	.212	125.70***
단계 2 (독립→종속)	외현적자기에 → 연대감	-.14	-.19***	.037	17.98***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외현적자기에 → 연대감	-.06	-.08	.081	20.70***
	분노반추 → 연대감	-.17	-.24***		

*** $p<.001$.

결과는 독립변수를 내현적 자기애로, 매개변수를 분노반추로, 종속변수를 성격적 성숙으로 설정한 경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01$. 단계 2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73, p<.001$, 단계 3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beta=-.71, p<.001$, 분노반추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4, ns$ 로 나타났다. 3단계의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자기애와 자율성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수를 외현적 자기애로, 매개변수를 분노반추로, 종속변수를 자율성으로 설정한 경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01$. 단계 2에서도 외현적 자기애가 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21, p<.001$, 단계 3에서는 외현적 자기애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beta=-.07, ns$, 분노반추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0, p<.001$,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출한 독립변수의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계수 β 는 각각 $-.21, -.07$ 로 2단계의 β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분노반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5.29, p<.00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독립변수를 내현적 자기애로, 매개변수를 분노반추로, 종속변수를 자율성으로 설정한 경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 p<.001$. 단계 2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80, p<.001$, 단계 3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82, p<.001$, 분노반추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beta=.04, ns$ 로 나타났다. 3단계의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자기애와 연대감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과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를 외현적 자기애로, 매개변수를 분노반추로, 종속변수를 연대감으로 설정한 경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외

표 5. 내현적 자기에와 연대감 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β	R^2	F
단계 1 (독립→매개)	내현적 자기에 → 분노반추	.47	.46***	.209	123.57***
단계 2 (독립→종속)	내현적 자기에 → 연대감	-.27	-.37***	.140	75.79***
단계 3 (독립, 매개→종속)	내현적 자기에 → 연대감	-.23	-.31***	.153	42.29***
	분노반추 → 연대감	-.10	-.13**		

** $p < .01$, *** $p < .001$.

현적 자기에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6, p < .001$. 단계 2에서도 외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19, p < .001$, 단계 3에서는 외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08, ns$, 분노반추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4, p < .001$,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출한 독립변수의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계수 β 는 각각 $-.19, -.08$ 로 2단계의 β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분노반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 = -4.33, p < .00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과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립변수를 내현적 자기에로, 매개변수를 분노반추로, 종속변수를 연대감으로 설정한

경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에가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6, p < .001$. 단계 2에서도 내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37, p < .001$, 단계 3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31, p < .001$, 분노반추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3, p < .01$,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출한 독립변수의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계수 β 는 각각 $-.37, -.31$ 로 2단계의 β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가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분노반추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Z = -2.71, p < .001$.

조절효과

자기에와 분노반추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외현적 자기에와 분노반추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1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점수만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단계 2에서는 자기자비 점수를 예언변인에 추가하였으며, 단계 3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을 구하여 예언변인에 추가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종속변인은 분노반추 점수였다.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분노반추 변량의 21.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분노반추 변량의 30.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분노반추 변량의 9.1%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91$,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분노반추 변량의 30.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분노반추 변량의 0.1%가 추가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Delta R^2=.001$, ns , 외현적 자기애와 분노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반추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분노반추 변량의 20.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분노반추 변량의 22.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분노반추 변량의 1.8%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18$,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분노반추 변량의 2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한 분노반추의 변화량은 0.3%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Delta R^2=.003$, ns ,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검증

되지 않았다.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성숙 변량의 5.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성격적 성숙 변량의 45.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성격적 성숙 변량의 39.9%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399$,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성격적 성숙 변량의 46.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성격적 성숙 변량의 0.5%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05$, $p<.05$.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성숙 변량의 53.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성격적 성숙 변량의 60.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성격적 성숙 변량의 7%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70$,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성격적 성숙 변량의 60.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성격적 성숙 변량의 0.5%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기에, $\Delta R^2=.005$, $p<.01$,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자기애와 자율성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자율성 변량의 4.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자율성 변량의 4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자율성 변량의 41.7%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417$,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자율성 변량의 46.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한 자율성 변량의 0.1%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Delta R^2=.001$, ns , 외현적 자기애와 자율성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 간 자기자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자율성 변량의 63.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자율성 변량의 68.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성격적 성숙 변량의 4.8%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48$,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자율성 변량의 68.2%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한 자율성의 변화량이 없고, $\Delta R^2=.000$,

$p<.001$, 상호작용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자기애와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연대감 변량의 3.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변량의 18.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14.4%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144$,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변량의 19.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1%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010$, $p<.05$.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와 연대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연대감 변량의 3.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변량의 18.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14.4%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144$, $p<.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표 6. 외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예언변인		B	β	R^2	ΔR^2	F
단계 1	외현적 자기애	-.33	-.24***	.057	.057***	28.22***
단계 2	외현적 자기애	-.14	-.10**	.456	.399***	195.57***
	자기자비	1.29	.65***			
단계 3	외현적 자기애(A)	-.14	-.10**	.461	.005*	132.63***
	자기자비(B)	1.30	.66***			
	A × B	-.21	-.07*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예언변인		B	β	R^2	ΔR^2	F
단계 1	내현적 자기애	-1.03	-.73***	.533	.533***	533.66***
단계 2	내현적 자기애	-.72	-.51***	.603	.070***	354.07***
	자기자비	.68	.34***			
단계 3	내현적 자기애(A)	-.72	-.51***	.607	.005**	240.17***
	자기자비(B)	.69	.35***			
	A × B	-.18	-.07**			

** $p < .01$, *** $p < .001$.

표 8. 외현적 자기애와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예언변인		B	β	R^2	ΔR^2	F
단계 1	외현적 자기애	-.14	-.19***	.037	.037***	17.99***
단계 2	외현적 자기애	-.08	-.11*	.181	.144***	51.56***
	자기자비	.40	.39***			
단계 3	외현적 자기애(A)	-.08	-.11**	.191	.010*	36.72***
	자기자비(B)	.41	.40***			
	A × B	-.16	-.11*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내현적 자기애와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예언변인	B	β	R^2	ΔR^2	F
단계 1			.139	.139***	75.79***
내현적 자기애	-.27	-.38***			
단계 2			.190	.051***	54.94***
내현적 자기애	-.14	-.19**			
자기자비	.30	.30***			
단계 3			.214	.024***	42.29***
내현적 자기애(A)	-.14	-.19***			
자기자비(B)	.32	.31***			
A × B	-.21	-.15***			

** $p < .01$, *** $p < .001$.

변량의 19.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1%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010$, $p < .05$.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와 연대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연대감 변량의 13.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변량의 1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자기자비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5.1%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051$, $p < .001$.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연대감 변량의 21.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해 연대감 변량의 2.4%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024$, $p < .001$.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와 연대감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경로분석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의 자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1.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분석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과 연대감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 적합도 지수 RMR(Root Mean-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충분 적합도 지수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판단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RMR 값은 대략 .05보다 작을 때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GFI, NFI, IFI, CFI 값은 대략 .90보다 클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R = 0.01, GFI = 0.99, NFI = 0.97, IFI = 0.97, CFI = 0.97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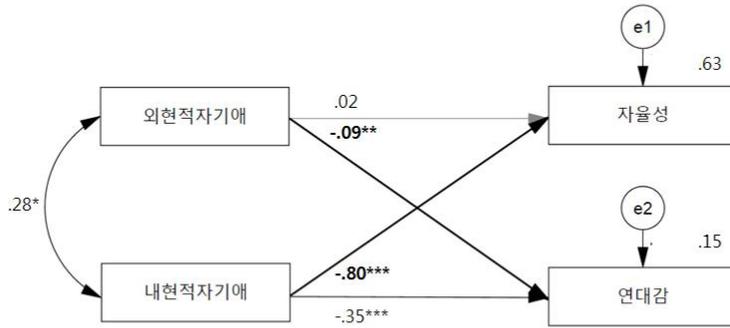


그림 1.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 연대감의 경로 모형

표 10. 경로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외현적 자기애 → 자율성	.02	.02	.03	.670
외현적 자기애 → 연대감	-.07	-.09	.03	-2.125**
내현적 자기애 → 자율성	-.76	-.80	.03	-27.576***
내현적 자기애 → 연대감	-.25	-.35	.03	-7.795***

** $p < .01$, *** $p < .001$.

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과 연대감의 경로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은 표 10과 같다.

경로모형의 개별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02$, ns , 외현적 자기애는 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beta = -.09$, $p < .01$. 내현적 자기애는 자율성과 연대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지만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80$, $p < .001$,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beta = -.35$, $p < .001$,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은 자율성보다 연대감에 더 크고 유의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은

연대감보다 자율성에 더 크고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매개효과 분석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자율성은 부적관계에 있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연대감이 연구모형 내에 포함되었을 때 외현적 자기애와 자율성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율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한 변인으로 인해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변하는 억제효과 가능성을 시사한다(Cohen, Doyle, Turner, Alper, & Skoner, 2003).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반추를 매개로 미성숙 성격에 이르고, 자기자비가 분노반추와 성격적 성숙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같은 자기애 성향이더라도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서로 다른 특징이 성격적 성숙을 이루는 자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에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성숙과의 부적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 연대감과의 관계에서도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성숙과의 부적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연대감에서만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적 성숙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분명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현적 자기애는 미성숙 성격에 이르는 경로에서 분노반추가 반드시 필요한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성격적 성숙을 도우려면 분노반추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와 미성숙한 성격과의 관계에서는 분노반추 외에 다양한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특질분노는 더 높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기 때문에(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이로 인해 미성숙한 성격에 이르는 경로에서 분노반추 보다는 낮은 자존감,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준득 외, 2007),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고,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인 특성을 보이며(박세란 등, 2005; 황성훈, 2010; Akhtar & Thomson, 1982; Wink, 1991), 좀 더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반추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자비의 증가와 더불어 반추가 줄어들고(안양규, 2014), 자기자비가 반추경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이주연, 2011), 자기애 성향이 분노반추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성격적 성숙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에 모두 조절효과를 보였다. 또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모두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자율성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연대감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자비는 타인의 부정적 반응으로 유발된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Leary et al., 2007),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고 내현적 자기애도 내면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메

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바라고, 부정적 평가에만 주의를 기울여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기자비의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고종숙, 2016), 특히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Leary et al., 2007),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성격적 성숙의 하위척도 중 연대감에만 조절효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자비의 증진이 자기개념(Self-concept)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조절하는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자비를 통해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느낌을 인식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Depue & Morrone-Strupinsky, 2005),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연대감의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넷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가 자율성과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은 자율성보다 연대감에 더 크고,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은 연대감보다 자율성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비취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대감’에 부적 영향력이 있지만, 의식수준에서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연대감’에 비해 ‘자율성’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율성’에 부적 영향력이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율성’에 비해 ‘연대감’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성격차원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즉각적인 분노표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준득 외, 2007),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돕고 타인수용,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연대감의 향상은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인 일부로 여기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Cloninger 외, 1994), 성격적 성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성격차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지만 다른 양상의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되므로(이준득 등, 2007), 자기비난을 줄이고, 억압된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자율성의 향상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여(Cloninger 외, 1994), 성격적 성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발현양상은 다르지만 성격적 성숙에 이르는 경로에서 모두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보임으로써 공통의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자비의 증진은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차원의 전반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변화가 어려운 기질이지만 자기자비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타인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격적 성숙을 돕고, 성격의 성숙은 유연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결국, 취약한 자기에 성향의 기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고 향후 자기애 성 성격장애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방어적인 응답이나 왜곡된 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횡단적인 연구로 단일 시점에 수집된 자료로 검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나 실험 연구도 병행한다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변화하는 특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에만 보이는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만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점이 있고 향후 두 집단을 구분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에 성향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심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평정에 의한 방법 등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만을 분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성격적 성숙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성격적 성숙을 높이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자기에 성향의 기질에 있어서 성격적 성숙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가 성격적 성숙을 이루는 자율성과 연대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고 자기자비는 공통적으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에의 두 하위유형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검증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기에 성향자의 내적인 역동과 부적응적인 대인관계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비의 증진이 자기에 기질로 인한 미성숙한 성격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성격의 발달과 성숙으로 자기에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기질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성격강점이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킨다는(하승수, 2012), 선행연구 결과와 상통하고, Cloninger 등(1994)의 ‘성격의 발달과 성숙을 통한 기질의 조절과 수용’이라는 치료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변화가 어려운 선천적인 자기에 기질은 수용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이 되는 후천적인 성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한 것은 최근 심리치료의 동향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본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은정 (2014). 자기자비와 자존감이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시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종숙 (2016).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성주 (2014).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및 공격성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이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한주 (2010).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격적 반응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자비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255-266.
- 박세란, 이훈진 (2013). 자존감, 자기자비와 심리적 부적응 및 안녕감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23-139.
- 박세란, 이훈진 (2015). 부정사건에 대한 자기조절과정에서 자기자비의 역할: 자존감과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877-907.
- 박세란 (2016). 자기자비가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6(2), 187-212.
- 박영주, 정남운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1), 55-74.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신정미, 조성호 (2014).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표현방식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29-148.
- 안양규 (2014). 자기자비(self-compassion)에서 본 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알아차림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의 치유기제. *불교학보*, 69, 147-168.
- 유성진 (2010). 불안증상의 발현에서 위험회피 기질과 체형회피 시도의 역할: 불안감내력장애의 개념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자기 자비,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증상들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0, 43-59.
- 이근배, 조현준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 연구*, 24(1), 1-22.
- 이상현, 성승연 (2011).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에 있어서의 자기-자비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93-112.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463-477.
- 이주연 (2011). 사적 자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1131.
- 조현주 (2014). 자비 및 자애명상의 심리치료적 함의. *인지행동치료*, 14(1), 123-143.

- 하승수 (2012).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기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이화 (2011). 하인츠코헷의 자기심리학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조혜선, 박미정, 이주영 (2015).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13.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ursten, B. (1982). Narcissistic personalities in DSM-III. *Comprehensive Psychiatry*, 23, 409-420.
- Cloninger, C. R, Bayon, C., &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S., Doyle, W. J., Turner, R. B., Alper, C. M., & Skoner, D. P. (2003). Emotional Style and Susceptibility to the Common Cold. *Psychosomatic Medicine*, 65(4), 652-657.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epue & Morrone-Strupinsky (2005). A neurobehavioral model of affiliative bonding: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ing a human trait of affiliation. *Behavior Brain Science*, 28(3), 313-350.
- Gilbert, P. (2014). 자비중심치료. (조현주, 박성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0).
- Jylhä, P., Ketokivi, M., Mantere, O., Melartin, T., Suominen, K., Vuorilehto, M., & Isometsää, E. (2013).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uropean Psychiatry*, 28(8), 483-491.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ary, M. R., Tate, E. B., Adams, C. E., Batts Allen, A., & Hancock, J. (2007). Self-compassion and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87.
- Neff, K. D. (2003).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2.
- Neff, K. D. (2011). Self-compassion, self esteem, and well be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 1-12.
- Patalano, F. (1997).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62, 879-882.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Svrakic, D. M., Whitehead,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seven-factor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91-999.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7일

논문심사일: 2018년 7월 2일

게재결정일: 2018년 12월 21일

The influence of narcissism on character matu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anger rumination and self-compassion

Hyo-Yeol L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Human Service,
Hanyang Cyber University

Seung-Soo Ha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and covert narcissism and character maturation,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n character maturation. 470 adults were survey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nger rumination was fully mediated through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character maturation. Covert narcissism was partially mediated only by subscales of character maturation. Secondly, self-compassion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both character maturation and subscale cooperativeness in both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Lastly, the higher the overt narcissism, the more negative influence on the cooperativeness than the self-directedness, and the higher the covert narcissism, the more negative impact on self-directedness than the cooperativeness.

Keywords: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Anger Rumination, Self-compassion, Character Maturation